

# 코로나 19 사태가 중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

(‘20. 2. 13)

북경/상해사무소 공동

## 1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

- 블룸버그,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기관은 중국의 ‘20년 1/4분기 성장률을 3.8%~4.8%로 다소 낮게 전망
- 노무라 증권은 코로나 19에 따라 중국 ‘20년 1/4분기 GDP 성장률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1.0~3.8%로 예상
- (성장률 전망) 주요 금융기관은 코로나 사태 발생 전 중국의 ‘20년 1/4분기 성장률을 평균 5.9%로 전망하였으나, 사태 발생 이후 성장률을 평균 4.4%로 하향 조정함.
- 다만, 2/4분기 이후에 중국정부의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 및 기준율·금리 인하 등 완화적 금융정책 강화에 따라 경제가 빠른 반등세(V-shape)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‘20년 전체로는 성장률 전망을 기존 평균 5.9%에서 5.6%로 소폭 조정함.

<시나리오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>

구분	1/4분기 (코로나 후)	1/4분기 (코로나 전)	‘20년 전체 (코로나 후)	‘20년 전체 (코로나 전)
Macquarie	4.0%	5.8%	5.6%	5.9%
UBS	3.8%	5.9%	5.4%	6.0%
Bloomberg	4.5%	5.9%	5.7%	5.9%
Standard Chartered	4.5%	6.0%	5.8%	6.1%
GoldmanSachs	4.0%	5.6%	5.5%	5.9%
JP Morgan	4.9%	6.3%	5.8%	5.9%
Citi	4.8%	5.9%	5.5%	5.8%
평균	4.4%	5.9%	5.6%	5.9%

자료: Bloomberg News("Economist's Cut China's Growth Forecast on Coronavirus Impact,")  
및 중국 華創 증권 리포트 종합

- (시나리오 분석) 노무라 증권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국 경제가 '20년 1/4분기 중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도시봉쇄 해제시점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제시
- (도시 봉쇄) '20. 1. 23자 우한시 봉쇄를 시작으로 대부분 후베이성의 대부분 도시가 봉쇄된 상태이며, 북경, 상해, 항저우 등 중요 도시에서도 봉쇄식 관리를 시행 중에 있음.
  - 해당 봉쇄 조치는 물류, 생산활동 등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바 봉쇄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
- (세부 전망) 2월말 봉쇄 해제시 1/4분기 성장률은 3.8%로 예상되지만 사태 악화에 따라 도시 봉쇄가 5~6월까지 지속되는 경우 1.0%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
  - 노무라 증권은 도시 봉쇄가 5~6월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, 2~3월 중에는 봉쇄가 해제되고 사태가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**<시나리오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>**

시나리오	도시봉쇄 해제시점	발생 확률	2019년	2020년				
				1/4	2/4	3/4	4/4	연간
Base(good)	2월말	40%	6.1%	3.8%	6.4%	6.1%	5.7%	5.6%
Less good	3월 중순	35%	6.1%	2.5%	6.6%	6.1%	5.8%	5.3%
Bad	4월 중순	15%	6.1%	1.2%	5.1%	6.4%	6.0%	4.8%
Worse	5월말	5%	6.1%	1.0%	2.4%	6.5%	6.1%	4.2%
<b>Worst</b>	<b>6월말</b>	<b>5%</b>	<b>6.1%</b>	<b>1.0%</b>	<b>1.0%</b>	<b>6.8%</b>	<b>6.2%</b>	<b>3.9%</b>

자료: CEIC(SARS: '03년 통계기준, 코로나는 '19년 통계기준)

## 2 SARS와 코로나 19 사태의 비교 분석

- '2002~2003년 SARS와 비교하여 ①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 상승 ② 춘절연휴 연장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③ 주요 도시에 대한 봉쇄조치 및 교통통제에 따른 인력확보 차질 발생 등에 따라 금번 코로나 19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됨.

### 원인 1. 서비스업의 비중의 증가

- (서비스업 타격) ① 북경, 상해 등 대도시의 단체 관광 전면 금지 ② 자금성 등 주요 관광지 폐쇄 조치 단행 ③ 항공철도·호텔·숙박 이용률의 급격한 감소 등에 따라 중국 서비스업의 타격이 불가피
- 중국 국가철도그룹은 춘절 연휴동안 철도 이용 고객이 전년 대비 70% 이상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,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금지 및 외국인 여행객의 중국 방문 급감 등에 따라 호텔 숙박 이용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

<SARS 및 COVID 19 서비스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>

구분		SARS	COVID 19(코로나 19)
발생시점		'02. 11월	'19. 12월
경제성장률	전체	10%	6.1%
	서비스업	9.5%	<b>6.9%</b>
서비스업	비중	42%	<b>53%</b>
	기여도	39%	<b>59.4%</b>
관광산업 피해 규모			
중국 내 관광수입 감소분		△11.2%	
외국인 여행객 방문 감소분		△15.2%	
외국인 여행객 관광 수입 감소분		△14.6%	N/A

자료: 노무라, CEIC(SARS: '03년 통계기준, 코로나는 '19년 통계기준)

- SARS 발생 당시 '03년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%에 불과하였으나, '19년 기준 서비스업 비중은 53%로 코로나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SARS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전망
- 또한, SARS 당시 중국 내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11.2% 감소하고, 외국인 여행객 방문수 및 관광수입은 각각 15.2%, 14.6% 급감하였으나 금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 감소폭은 **훨씬 클 것으로 예상**
  - 글로벌 호텔 체인 힐튼이 중국 내 150개 호텔을 잠정 폐쇄하는 등 중국 호텔 투숙률은 전년보다 약 80%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
  - 영화관 상영 중단, 단체 모임 전면 금지, 식당 영업 개시일 연기 등에 따라 서비스 업종의 타격이 상당한 상황

## 원인 2. 조업중단 일수 감소

- (조업 중단) 코로나 사태 확산의 방지를 위해 중국 국무원이 춘절 연휴 종료 시점 연장하고, 각 성별에서 자체적으로 출근 재개 시점을 달리 하는 조치를 단행함.
- 기존의 춘절 연휴는 1.24일부터 30일까지였으나, 춘절 연장 조치에 따라 지린, 쓰촨성 등에 경우 추가로 업무중단 일수가 3일 증가하고, 북경, 상해, 광둥성 등 대부분 지역에서도 업무중단 일수가 10일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

<중국 춘절 연휴 연장에 따른 생산 중단 현황 요약>

생산 재개일	해당 지역	생산 중단 기간
2.3(월)	지린성, 쓰촨성, 칭하이성 등	3일
2.10(월)	북경, 상해, 허난성, 산시성, 안후이성, 장쑤성, 광둥성, 산둥성 등 대부분 지역	10일
2.14(금)	후베이성	14일
2.17(월)	저장성 윈저우시(도시 폐쇄에 따라 연장)	17일
미정	천진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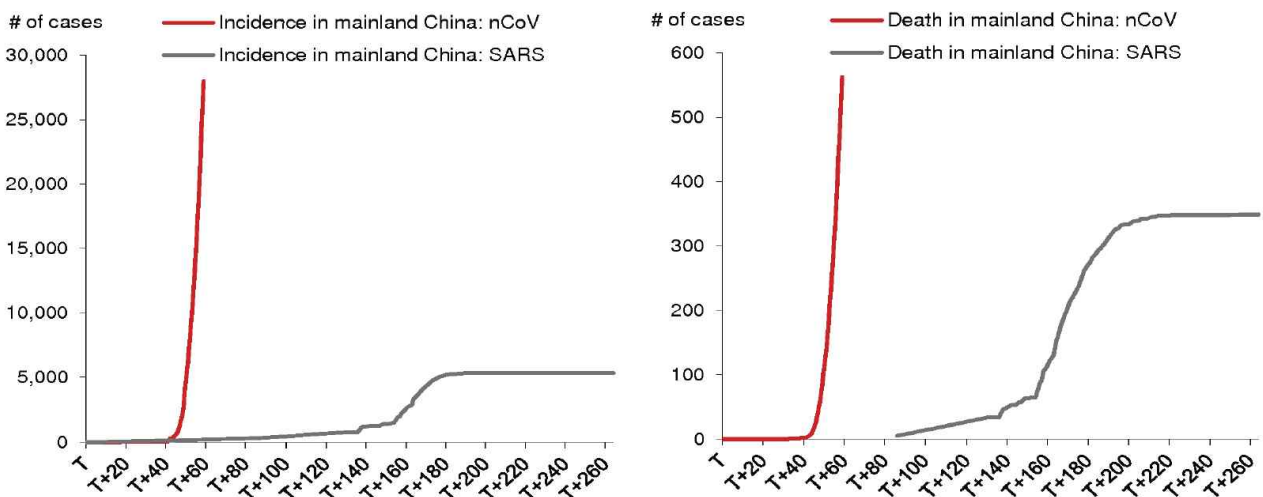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무원 및 각 지방정부 발표 내용 정리

- 특히, 이번 춘절 연장 조치는 신중국 건설 이후 처음 발생하여 SARS와 비교하여 조업 중단 일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, 공식 업무 재개일 이후에도 ① 조업 재개를 위한 필수 방역물자 부족 ③ 귀경 인원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 인력 부족 ④ 재택근무 권고 및 출근 시점 연기 등에 따라 공장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.
- (영업 재개 연기)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(黑龍江)성의 경우 고용주들에게 춘제 연휴를 2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, 알리바바, 메이투안(美團) 등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출근을 2.16일 이후로 연기함.
  - 기업들의 공장 재가동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, 소독제, 체온계 등 방역물자를 구비해야 하지만, 대부분의 회사에서 방역물자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장 재가동에 차질이 발생
- (귀경 인원의 감소) 2.8(토) 철도 이용 승객 인원은 전년 동기간 대비 85% 감소한 127만 명에 불과해 춘절 연휴 종료에 따라 고향에서 대도시로 복귀하는 귀경인원이 대폭 하락하여 기업들의 생산가능 인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
- (기업 부담 증가) 북경, 상해 등 대다수의 도시들이 감염자 수 확대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어 인력의 생산현장 투입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며, 의심환자로 분류된 직원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% 지급하고 연휴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에 대해 임금 300%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
  - 특히, 대부분의 기업 및 시설에서 타지역 복귀자의 경우 2주간 자가 격리 후 출근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인력 충원에 문제가 발생

### 원인 3. 주요 도시에 대한 봉쇄 조치

- (도시 봉쇄 조치) 도시 봉쇄 방식이 우한을 포함한 대부분의 후베이성 도시 및 저장성 윈저우시 등에서 시행되고 선전, 항저우 등 대도시에서 봉쇄식 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도시내 경제활동 제약 지속, 핵심 물류 시스템 가동 차질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- 특히, SARS의 경우 광둥성에서 시작되어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나, 금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 인구 11백만 명의 우한을 포함하여 후베이성(인구 59백만 명), 허난성, 산시성, 안후성 등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침.
- SARS와 비교하여 발병 후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 속도가 코로나 19가 확연히 빨라 중국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

**<SARS/COVID 19 발병 후 확진자 및 사망자 추이 분석>**



자료: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, WHO, CEIC, 노무라 증권('20. 2. 5자 기준)

//끝//